

지금 미얀마는 80년 5월 광주 ... 응원·연대의 손 내밀다



함께 내딛는 새로운 50년

<1> 아시아 민주주의 교과서

5·18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1주년을 맞는다.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왜곡과 폄훼는 여전하고, 진실 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5·18은 끊임없는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희생으로 현대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했고, 나아가 독재에 핍박받는 아시아 각국의 희망으로 자리잡았다.

광주 5·18은 다가오는 50주년을 대비해야 한다. 5·18정신을 젊은 세대에 전하고, 반인권적 폭력 상황에 내몰린 아시아와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까지 확장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이제 5·18의 미래는 민주화운동 세대가 아닌 5월항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 달려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광주일보에는 5·18의 50주년을 위한 첫 결음으로서 '5·18, 함께 내딛는 새로운 50년' 연재를 시작한다.

미얀마 민주화를 열망하는 꽃들이 무수히 떨어지고 있다. 연일 미얀마에서는 시위대와 시민들에 대한 군부의 무차별 탄압이 진행되면서 광주 시민들과 학생들은 어느 국가보다 미얀마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

군부에 의한 폭력, 고립, 억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함께 연대하는 힘이 얼마나 든든한지 알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행동들로, 41번째 맞이하는 광주의 오월이, 미얀마를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 교과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41번째 이어져온 오월 광주정신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에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시민들 스스로의 움직임으로 다양

5·18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 미얀마는 오월 광주 알릴 기회 '함께 미얀마' 캠페인 동참 응원 영상 만들고 전시회 열어 미얀마인들 투쟁에 힘 실어줘

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 미얀마 연대지 캠페인 중 하나인 '함께 미얀마(With Myanmar)' 캠페인은 5월 1일부터 한 달간 노래·편지·악기연주·안무 등을 직접 촬영해 미얀마 국민에게 응원과 공감을 온라인 상에 올리는 활동이다. 캠페인을 기획한 이나단씨는 제주시민이다. 그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미얀마 상황을 접한 뒤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비슷한 상황이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연결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국내에서 5·18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알리는 기회로 삼고 미얀마에는 우리 국민들의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의도를 설명했다. 이씨는 "제대할 때까지 5·18을 몰랐다가 영화 '화려한휴가'를 보고 관심을 갖게됐다"면서 "1980년 광주는 방송·언론 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통제돼 광주는 고립됐다. 미얀마도 와이파이가 끊기고 통제되는 상황에 놓여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에 응원영상을 올리면 전달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캠페인은 9일 현재 8편이 제작돼 온라인상에 퍼날라지고 있다. 제작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이미지' (imagine) 등 국내의 대중가요, 미얀마 노래, 편지, 악기연주, 그림 등으로 영상을 만들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가수·화가·작곡가·디자이너까지 참여했고 어린이가 혼자 만든 것부터 가족들이 함께 제작에 참여하는 등 방식도 다양하게 제작됐다.

▶2면으로 계속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최고위원 등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를 당직자 등과 함께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거리두기 완화 유희시설·식당 등 영업 자정까지 연장

광주시는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강화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고려해 유희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밤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했다.

<관련기사 2면>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9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방역 상황과 지역 경제의 균형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10일부터 16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유희시설, 식당 등 일부 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했다. 유희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의 영업시간 제한은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로 영업 가능 시간이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는 자정까지 영업한 뒤 이튿날 오전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종교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제한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폐막 39일간 관람객 8만5000명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린 제13회 광주비엔날레가 9일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16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두 차례 연기된 후 열린 올해 비엔날레에는 지난 4월 1일 개막 후 39일간 모두 8만5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주전시관인 광주 용봉동 광주비엔날레전시관과 국립광주박물관, 옛 국군 광주병원 등에서 열린 이번 비엔날레에는 40여 개국 69작가(명/팀)가 참여해 40점의 커미션 신작 등 450여 작품을 선보였으며 관람객들은 방역수칙을 지키며 현대 미술의 향연을 즐겼다. /김미은 기자 mekim@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여야 지도부, 5·18묘지 참배 '호남 구애'

민주 송영길 대표 "당당하게 유능한 개혁정당 만들어 가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행 "호남지역에 관심과 사랑 더 쏟겠다"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지난 7일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구애를 펼쳤다. <관련기사 2·3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 당 지도부들과 함께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차례로 참배했다. 민

주당 지도부는 오전 9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전 10시에 방문해 양 당간 조우는 없었다.

송영길 대표는 추모탑 앞에서 큰절을 한 뒤, 방명록에는 "因難結德 苟且彌縫(인손고식 구차미봉). 인습을 고치고 편안함을 버리고 당당하게 유

능한 개혁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당 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었다. 송 대표 취임 후 현장 최고위원을 연 것은 호남이 처음이다. 송 대표는 "광주·전남이 미래 에너지, AI(인공지능) 산업 선도지역으로 발전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 대행도 이날 원내 지도부와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오월 민주 영령님께 깊은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라고 적

었다. 김 대표 대행은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12살의 나이로 집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초등학생 전재수군의 묘역도 참배했다. 특히 전재수군의 묘비를 어루만지면서 나이를 묻고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김 대표 대행은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희생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돌아가신, 부상하신 모든 분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이날 광주글로벌모터스 현장 시찰과 전남도당 개소식을 이어가며 호남 행보를 이어갔다. 김 대표 대행은 "우리 당에서 호남 지역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관심과 사랑을 더 쏟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동북아 LNG 허브터미널 구축! 세계 에너지 시장의 중심으로 도약!

LNG 탱크 20만kℓ 12기를 2030년 완공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주)한양 LNG 사업실적

- 1,983년 국내 최초 LNG 저장탱크 준공 (평택 LNG 인수기지)
- 27만 kℓ 세계 최대 규모 LNG 저장탱크 준공 (2017년 삼척 LNG 생산기지 내, 당시 기준 세계 최대)
- 293만 kℓ 한양이 시공한 LNG 저장탱크의 총 용량
- 360만 t/h 기화송출설비 준공 용량 (인천기지 설비 기준)
- 450 km 한양이 시공한 주배관 시공 총 길이

미래 에너지의 길을 열어갑니다

사람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와 자연과 함께 하는 주택개발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한양이 에너지의 새로운 미래를 그립니다.

LNG 시설의 구축에서 운영까지, 에너지 완성형 기업, 한양과 함께 할 에너지 선진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에너지 미래의 에너지가 된다 - 한양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